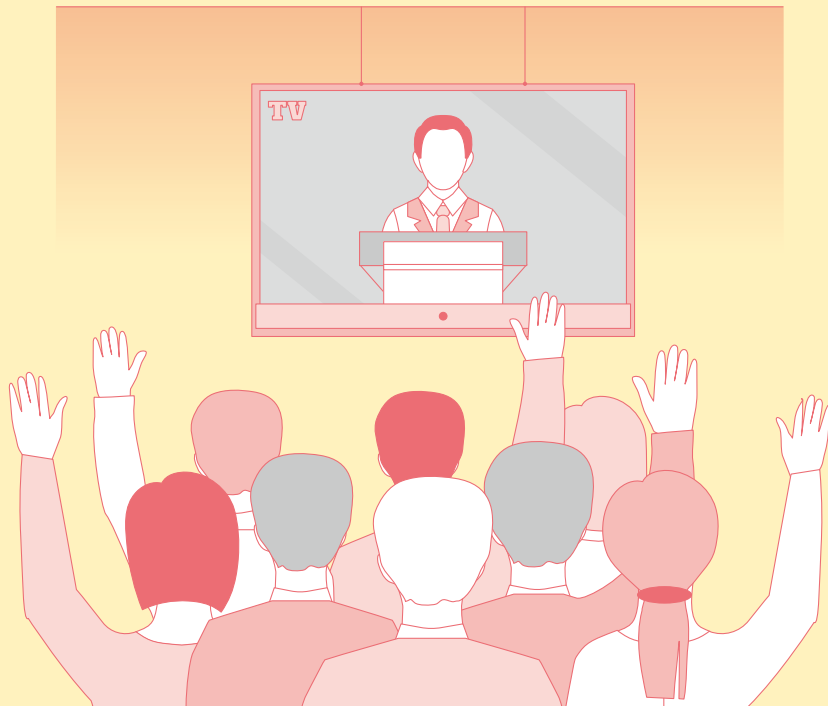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성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법제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실정법과 법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방향과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실 부연구위원)



최근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인식도 쟁점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취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과 정도가 다양한 입장을 구분하는 차이를 드러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소수자 관련 법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10월에 발간된 본 연구는 성(性), 특히 성평등에 관련한 우리 법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법에서 '양성'을 전제하고, '성적 지향'은 인권 보호의 대상, 특히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관념하고 있다.

우리는 성에 관한 기본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평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성평등'이념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양성(兩性)'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다른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성소수자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성적 지향(性的 指向)'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대상에 관하여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 규정은 성적 지향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불합리한 근거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우리 법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주요 외국의 법제와 우리 법제를 비교하였다. 이런 비교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이와 관련된 법제 수요가 중요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법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실정법과 법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방향과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국 법제에서 '입법동향'과 '지원체계'에 집중하였다. 여기서 입법 동향이란 '성'을 직접 다루는 개별 법령의 현황과 최근 변화 양상을 말한다. 법제를 실정법령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례나 의결사항 등 유의미한 법적 결정을 입법 동향의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으로 구성하였다.

보고서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인 '지원체계'란 성평등 관련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을 말한다. '행정조직'이라는 개념을 우리 법제 실무에서는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는 '추진체계'로 지칭하기도 하고, 정책이 '지원'이 중심일 때는 '지원체계'라고 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런 지원을 포함하여 각 국가가 수립하여 수행하는 정책 일반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넓게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국제기구와 주요국에서는 성에 관한 입법적 조치들이 지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여성의 지위를 신장시키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성소수자에 관해서는 차별, 혐오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법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법동향과 맞물려, 행정조직 역시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정부 조직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차별 해소를 위한 전문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가 우리 사회의 성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